

# Cross-sections of Strata and Materializing Form

지층의 단면, 형태의 구축

Lee Jeonghoon

이정훈

건축은 공간을 다루는 일이다. 하지만 건축가는 공간 그 자체에 앞서 그 장소의 시간성을 먼저 인식해야 한다. 건축이란 공간을 기능적으로 조직하는 일일 뿐만 아니라 대지의 역사와 풍토, 궁극적으로 그 장소의 의미를 해석하는 작업이기 때문이다. 노르웨이 항구도시 바르도(Vardo)에 페터 촘토르가 설계한 스타일네셋 기념관이 좋은 사례이다. 17세기 마녀사냥으로 희생된 아흔 한 명을 추모하기 위해 만들어진 이 기념관은 노르웨이 해안가 풍경을 수평적으로 이어주며 극적으로 존재감을 드러낸다. 소나무 구조체가 패브릭을 끌어 당겨 마치 누에고치집처럼 내부 공간을 만드는데, 이는 건축 구조와 공간 형태가 만들어내는 긴장감이 대지의 역사와 만났을 때 얼마나 더 강력해지는지를 보여준다. 즉 이 프로젝트는 지역의 풍토와 건축적 형태가 만나 과거의 기억을 다층적으로 공간화한 좋은 사례이다.

이런 시각으로 본다면 부산의 암남공원은 상당히 흥미로운 곳이다. 수 만년 동안의 퇴적작용이 만들어낸 지층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국가지질공원이면서도 부산 시민들에게 없어서는 안될 매우 중요한 생활복지공간이다. 바로 앞으로는 송도 바다가 펼쳐진다. 해안절벽, 수평선, 숲,

Architecture crafts space. Yet, before confronting space, the architect must first become aware of the temporality of place, as architecture seeks not only to attribute functional order to space, but also to provide a reading of the site's history and climate, and ultimately its specific context. The Steilneset Memorial designed by Peter Zumthor in the Norwegian port city Vardø is a good example. Built to commemorate 91 lives sacrificed to witch hunting in the 17th century, the memorial dramatically unveils its presence through a horizontal connection to the coastal landscape. Its pine structure tugs upon fabric to create a cocoon like interior, revealing how a sense of tension created through architectural structure and spatial form is heightened by engaging with the site's past. Thus, the project exemplifies how the interplay of local context and architectural form can materialize past memories as a space layered with meaning.

In this sense, Amnam Park at Busan is a highly fascinating place. As a national geo-park with pristine remains of sedimented layers, formed through erosion and accumulation over millennia, it is also a vital, pulsating green space essential to the people of Busan. Just ahead, the Songdo Sea lies open wide. What should architecture convey in such a place, where coastal cliffs, horizons, forests - such timeless layers - co-exist? How can the continuity of the earth's layers be portrayed as architectural space? How could this space draw in the scenes of Songdo beach, known locally as myobakji, a haven for ships? How can the site's sense of place, an exquisite match for a café, be materialized and in what form? These were the questions I asked myself during my first sojourn on site.

An “archetype” is an instinctively evoked, common image. If one were to picture an

이렇듯 무수한 시간의 겹이 있는 장소에서 건축은 어떠한 의미를 내포해야 할까? 이 지층의 흐름을 어떻게 건축 공간으로 재현할 수 있을까? 배들이 쉬어가는 곳이란 뜻으로 '요박지'라고도 부르는 송도 앞바다의 풍경을 어떻게 공간에 끌어들이 수 있을까? 카페라는 프로그램과 절묘하게 어울리는 이곳의 장소성은 어떤 모습으로 발현될 수 있을까? 이것은 내가 처음 이 대지에 머물며 던진 질문들이다.

'원형'이란 본능적으로 우리 마음 속에 떠오르는 보편적인 상징이다. 가령 바다의 원형을 상상하라면 뾰족한 삼각형보다는 수평선처럼 좌우로 길게 뻗은 선을 먼저 떠올릴 것이다. 즉 원형은 형태가 지닌 심미적 감성에 건축이 다가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될 수 있다. 나는 지금까지 대지의 장소성 안에서 어떤 유형적 상상력을 자극해 건축의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을지에 관심을 가져왔다. 2011년에 완공한 남해 처마하우스는 황토 벽돌로 지은 조그마한 농가주택을 리모델링한 프로젝트이다. 주택 볼륨의 비례를 변형하고 그 앞에 여러 개의 커를 겹겹이 포개 파사드의 비례감을 만들었다. 고즈넉한 느낌의 뒷산과도 잘 어울리는 처마선은 레이어의 형태를 결정짓는 중요한 모티브가 되었다. 즉 기존의 사각형 볼륨 대신 배경인 뒷산과 연결되는 선을 새롭게 구축함으로써 이미지를 바꾼 것이다. 2016년에 완공한 플랫폼엘 컨템포러리아트센터는 고밀도의 도심 공간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한 프로젝트이다. 패션 브랜드 루이까또즈의 복합문화센터로, 외피에서 브랜드 상징성을 최대한 부각하는 한편 강남이란 도시 맥락에 스며드는 모습을 의도했다. 중정을 두어 도심 속 여백을 만들고, 지하에는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공연장을 계획해 상업적인 확장성도 고려했다. 이렇듯 저마다의 대지가 지닌 의미와 상징성 위에서 새로운 유형에 대한 이야기를 펼쳐내는 일이 건축가의 과제이다. 이것은 장소의 의미를 발굴하는 과정이자 건축의 가장 큰 매력일지 모른다.

archetype of the sea, it's likely to be a horizon-like line, extending far out from side to side, rather than a pointy triangle. As such, the archetype is the only means by which architecture can touch upon an aesthetic sensibility of form. My primary interest, to this day, has been to understand how our ability to visualize form can be stimulated to construct an image of architecture within the context of a site. Namhae Cheo-ma House, completed in 2011, was a remodeling project of a small agrarian residence built with red clay bricks. The volume ratio was adjusted, and the front façade was given a sense of proportion by overlaying multiple layers. The curvature of the roof's eaves, complementing the pleasant hill behind, was a critical motif for determining the form of the central layer. Hence, inserting newly drawn lines made it possible to construct a new image where the project connected with the background hill, instead of retaining its former cube-shaped volume. Platform-L Contemporary Art Center, completed in 2016, is a project intended to give new meaning to a highly dense urban center. As the cultural complex of the fashion brand Louis Quatorze, it was intended that the brand's symbolism be fully accentuated through its outer skin, while the project engages with the urban context of Gangnam. The addition of a central courtyard allowed the insertion of a void in the city center, while a future multi-use underground concert hall was designed to provide for further commercial activity. As such, the architect is destined to draw out and depict new forms upon contextual and symbolic backdrops of each site. This gives meaning to place, and is perhaps what gives architecture its singular appeal.

The sea in my mind's eye is far from calm. It is shaped by dynamic lines, like Katushika Hokusai's woodblock print, *The Great Wave at Kangawa*. Its relentlessly peaceful horizon nevertheless churns with a tumultuous force concealed within. The ocean would have been an object of reverence, even through the eyes of the fishermen penetrating daily darkness for their livelihoods. Perceiving the sea as the origin of force and the dynamism of life, rather than a powerless calm, allowed me to introduce other motifs than that of a calm lyricism when interpreting the Songdo beach scenery.

Songdo beach is a dynamic space. The underbelly of distant images of ships idly floating by is perhaps in fact charged with the innate drive of those who wish to lead an honest life. The scenic views of small and large boats entangled up against the backdrop of Yeongdo island conveyed to me that the sea is in fact a heated and smarting battlefield of survival for some. This proposes a characteristically different scenery from that of the neighboring Haewoondae. Meanwhile, even within the Songdo district, the view of the sea comes across as entirely different from Songdo beach's mishmash of commercial outlets, and from the luscious green forestry and layered black rock of the site. Place modifies perspective. These unruly seaside landscapes seem to demand that we change our attitude to the sea. They seem to call for new interpretations of the sea; for it to be portrayed as a site overflowing with a lyrical yet dynamic energy.

Written by Lee Jeonghoon

내 심상 속의 바다는 고요하지 않다. 가쓰시카 호쿠사이의 목판화 '가나가와 해변의 높은 파도 아래'처럼 역동적인 선을 가지고 있다. 한없이 고요한 수평선이 눈앞에 있다해도 나는 그 아래에 감춰진 거대한 에너지를 느낀다. 생계를 위해 매일 어둠을 뚫고 나서야 했던 어부들의 눈에도 바다는 경외의 대상이었을 것이다. 이렇듯 바다를 잔잔함보다는 힘의 근원이자 삶의 역동성으로 느껴왔기에 송도 앞바다의 풍광을 서정적인 이미지로만 해석하지 않고 색다른 모티브로 가져올 수 있었다.

송도 앞바다는 역동적인 공간이다. 저 멀리 선박들이 그냥 떠 있다하더라도 그 휴식의 이면에는 삶을 영위하기 위한 치열한 생동감이 내재되어 있다. 영도를 배경으로 크고 작은 선박들이 얹혀 있는 풍광 역시 이곳의 바다가 누군가에게는 뜨겁고도 매운 삶의 터전일 수 있다고 말하는 것 같다. 이곳의 풍경이 해운대의 풍광과는 다른 이유다. 한편 같은 송도라도 각종 상업시설로 채워진 송도해수욕장에서 보는 바다와 푸른 숲과 검은 암석으로 채워진 이곳 대지에서 보는 바다는 전혀 다르다. 장소가 시선을 다르게 만들기 때문이다. 무분별하게 조성된 해안가 풍경은 바다를 마주하는 태도가 달라져야 한다고 말하는 듯 하다. 바다의 새로운 의미, 서정적이면서도 역동적인 에너지가 넘치는 대지로 해석하는 시도 말이다.

글 이정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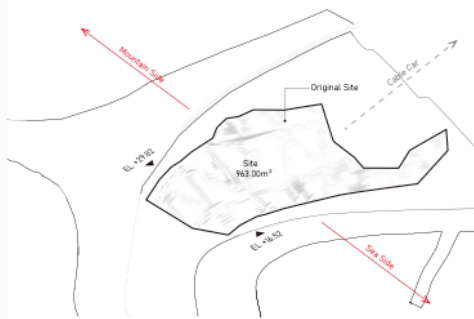


켜켜이 쌓인 지층으로 이뤄진 송도의 풍경  
Scenery of Songdo made up of layers of strata

대지는 두 도로에 인접해 있다. 하나는 지하 2층 레벨로 해안  
공영주차장 방향의 도로이고 다른 하나는 지상 2층 레벨로 송도  
도시를 향하는 도로다. 이 두 도로가 약 13.5m의 높이 차를  
갖는 만큼 토지 형질변경에 따르는 제약이 상당했다. 대지에서  
건축행위가 허용되는 경사도 범위 내의 면적을 먼저 산정하고,  
이 값에 한번 더 건축법의 세부 요건들을 적용해야 최종적으로  
건축 가능한 면적을 도출할 수 있다. 이런 과정을 거치다 보면  
결국 건축 가능한 면적은 대지면적보다 작을 수밖에 없다. 이  
경우 주차 동선 계획이 매우 중요한 이슈로 떠오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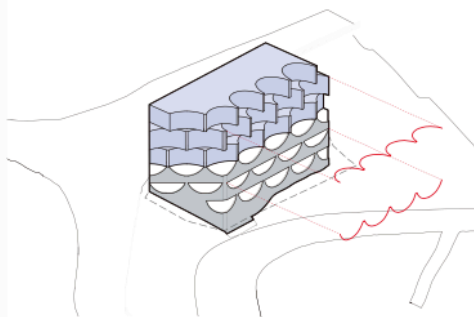
The site borders two roads, one at B2 level extending towards the public carpark at the seaside, and another at 2F level leading to Songdo city center. With an approximately 13.5m level difference between the two roads, significant constraints were applied in terms of altering the land shape and quality. It was possible to determine the final buildable area by first calculating the buildable slope area, and then applying specific conditions from building codes. This process inevitably resulted the final area for architectural intervention becoming smaller than the site. In these cases, resolving parking lot circulation becomes key.

## Mass Development



### 1. Site and Context

본 대지는 부산 압남공원 앞에 위치하며, 남동쪽으로는 바다를 면한다.  
대지는 급한 경사면으로, 맞닿은 두 도로의 약 13m의 높이차를 가지고 있다.  
사이트 주변으로는 높은 기암절벽의 지층이 파도와 어우러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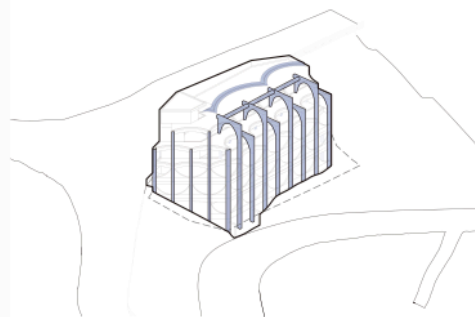
### 4. Waving Stratum

각 층의 볼륨은 사이트의 특성에 맞게 파도를 닮은 형태로 적용된다.  
상층부는 3차원적인 아치형태, 하층부는 2차원의 아치형태를 이용하여  
파도와 지층이라는 사이트의 두 가지 특징을 투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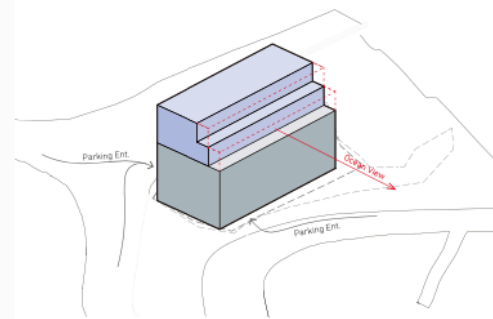
### 2. Maximum Volume

개발행위 상 실제 개발 가능 구역은 평균 경사도를 통하여 결정된다.  
제설정된 대지경계 범위 내에서 건축 가능한 최대 매스를 구성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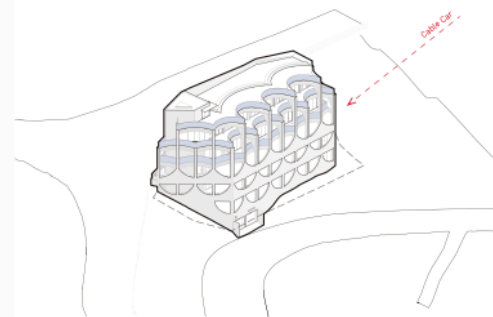
### 5. Structure

파도를 닮은 아치형태는 슬라브와 벽체에 적용될 뿐만 아니라 기둥과 보에도 맞물려  
전체 건물을 지지하는 구조체의 역할을 수행한다.



### 3. Programmatic Strategy

상층부의 근린생활시설은 테라스 형태로 바다를 마주하도록 구성하며,  
하층부의 주차공간은 최대한 많은 주차대수를 확보하도록 계획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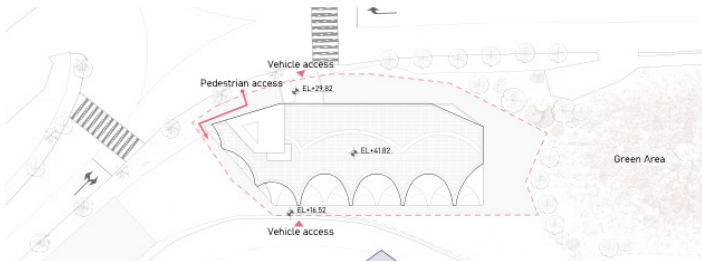
### 6. Facade

구조체이자 벽체, 슬라브인 각 아치 형태들은 그대로 외부에 노출되어 통일감있는  
파사드를 구성하며, 시각적으로 다채로운 건물의 입면을 완성한다.

[EL 16.52]



우리는 대지를 분석하며 건물 상하부로 주차 동선을 분리하는 접근에 관해 거듭 스터디했다. 그 과정에서 카페 운영에 필요한 기능실을 여유 있게 확보하고 주차 동선을 효율적으로 계획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미션으로 떠올랐다. 이러한 관점에서 상·하부 주차 동선을 서로 연결하지 않고 분리해 배치했다. 주차 영역을 두 파트로 구분하면서 그 사이공간에 기계실 및 각종 피트를 넣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13.5m 레벨 차를 공간을 구분 짓는 단서로 활용하고 또 2개 주차 영역을 기능적으로 해석하는 과정이 대지를 이해하고 건축의 기본적인 틀을 잡아가는 중요한 시작점이었다. 지하 주차장은 상부 주차장에 비해 좀 더 프라이빗한 영역으로 조성되었다.



Aside from site analysis, we repeatedly studied how to separate parking circulation between the upper and lower side of the project. Here, it was crucial that enough space be secured for utilities for café maintenance, and an efficient plan for parking circulation. Such reasoning helped us disconnect upper and lower vehicular circulation and place them separately. It was deemed more efficient to separate two parking areas, and to place the machinery room and utility spaces between them. As such, the processes of using the 13.5m level difference to demarcate space, and interpreting the function of the two parking areas was an important starting point to understand the site and create a basic framework for the design. The lower parking spaces were established to be used slightly more privately than the upper level.

[EL 16.52]





This café at 3F hosts the site's most dramatic encounter with the Songdo seafront.

Appropriate Width and Proper Rhythm

구조체는 압남공원이 지니고 있는 지층의 풍경과 맥락을  
같이한다. 특히 시간이란 레이어를 켜켜이 쌓아온 지층  
개념을 건물의 건축적 맥락으로 끌어오기 위해서는 지층의  
상부와 하부의 흐름을 단서로 불륨화하고 이를 구조적으로  
패턴화하는 접근이 필요했다. 이러한 의미에서 지층 구조는  
반복적인 패턴에 논리적인 근거를 부여한다. 무릇 지층이 시간의  
퇴적 작용에 의해 형성되는 것이라면 이곳의 건축은 그러한  
형태적 모티브들이 반복되어 지층화된 결정체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해변가의 지질층이 내려다보이는 본 대지는 지층이  
건축적으로 재현될 최적의 장소일 수 있다. 건축의 본질이 공간  
의 구축이라면 그 과정은 철저히 대지가 지닌 시간의 켜들과  
함께 이야기되어야 한다. 지층의 흐름과 궤를 같이하는 이곳의  
건축은 어쩌면 지층이 지닌 시간의 반복을 담아 내야만 한다.  
형상의 반복은 공간을 견고하게 만드는 수단이기 이전에 대지가  
지닌 시간의 켜를 공간과 연결하는 요소이기도 하다. 반복되는  
웨이브는 지층의 시간성을 담아내는 중요한 건축적 장치이자  
바다를 향한 경외와 의미를 담는다.

글 이정훈

The project structure shares a common context and legacy with the strata of Amnam Park. In particular, the task of engaging the concept of strata as accumulated layers of time as part of the architectural context necessitated that the circulation of the upper and lower levels of the strata be materialized through an illustrative emblem, which could be systematically applied as a pattern. From this perspective, the structure of the strata justifies the choice of repeated patterns. If strata is generally formed through the sedimentation of time, its architectural embodiment becomes the final product of stratification through repeated formal motifs. In this light, the site, with its view looking down to the geological layers of the coast can be interpreted as an optimal site for an architectural representation of strata. If the essence of architecture is the construction of space, its process must strictly be discussed with the layers of time inherent to the terrain. The architecture here, which accompanies the flow and trajectories of the strata must embody the repetition of time present within the strata. The repetition of a figurative motif is, foremost also an element which connects the layers of time with the site, before becoming a means to solidify the space. The repetition of the waves is an important architectural device manifest of the temporality of the strata, as well as an embodiment of a sense of reverence and significance towards the sea.

Written by Lee Jeonghoon

[EL 16.52]



## The Parking Level: Efficiency and System

주차장: 효율과 시스템

대지의 동쪽과 서쪽 사이에는 13.5m의 높이 차가 있다. 레벨이 낮은 동쪽은 암남공원 공영주차장으로 이어지는 도로와 마주하고, 레벨이 높은 서쪽은 송도를 돌아나가는 도로와 마주한다.

이에 동쪽으로 진입하는 건물 하부 주차장은 VIP와 관리자용 주차장으로, 서쪽으로 진입하는 지상 2층의 주차장은 방문객용 주차장으로 계획했다.

300여 평이 채 되지 않는 작은 대지를 형질변경하고 나니 건축행위를 할 수 있는 면적은 최대 150여 평 정도였다. 이런 까닭에 법정 층수 제한(4층 이하)을 지키면서도 경사지의 특성을 최대한 활용해 적절한 사업성을 지닌 용적률을 찾는 것이 다음 과제였다. 즉 적절한 규모의 카페 면적과 법정 기준보다 많은 주차대수, 대지와 접한 2개의 도로를 연계하는 동선 체계 및 추후 확장 가능성을 고려해야 했다. 전체 연면적 2,900m<sup>2</sup>(870평) 중 카페 규모는 1,000m<sup>2</sup>(300평) 정도로 설정했고 테라스를 확장해 실제 가용면적을 극대화했다.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에서 지하 2층부터 지상 1층은 주차 및 관리, 기계실 영역으로 잡았다. 지상 2층부터 3층은 테라스가 있는 카페 영역으로 통창을 내 바다 풍경을 꺼안았다.

A level difference of 13.5m exists between the eastern and western sides of the site. The lower eastern side touches upon a road leading to Amnam Park public parking, and the upper western side meets a road turning towards downtown Songdo. Here, the lower parking area with an eastern entrance is designated for VIP and personnel, and the upper parking area leading in from the west at 2F is planned for visitors.

Modifying the form and quality of the scarcely 300pyeong large site resulted in a maximum buildable area of approximately 150pyeong. This was why it became an important mission to figure out a floor area ratio with viable commercial potential by taking advantage of the sloping site, while conforming to height limit regulations (no more than four floors). Hence, it was necessary to consider an adequate amount of space for the café, more parking spaces than the regulated norm, a circulation system to connect both roads at the site, and the potential for further extension. From the total ground area 2900m<sup>2</sup> (870pyeong), the café was set at around 1000m<sup>2</sup> (300pyeong), with the actual occupied area maximized by extending the terrace. For a project spanning from B2-4F, B2-1F was assigned for parking, maintenance and utilities. 2F-3F was dedicated to the terraced café, which, by way of window walls, would embrace panoramic views of the sea.

[EL 25.12]



## 2F: The Path and Entrance

### 2층: 길과 진입

건물 2층 서쪽으로 EL16.52 주 출입구가 있다. 서쪽 입면은, 테라스가 있어 바다로 열린 느낌을 주는 동쪽 입면과는 다르게 주방 및 프라이빗 룸들로 구성된 탓에 상대적으로 솔리드하게 구성되었다. 암남공원을 따라 이어질 방문객의 걸음을 건물 안으로 연결하는 동시에 방문객용 주차장의 진출입까지 고려해야 했으므로 사람과 차량 간의 명료한 진출입 계획이 필요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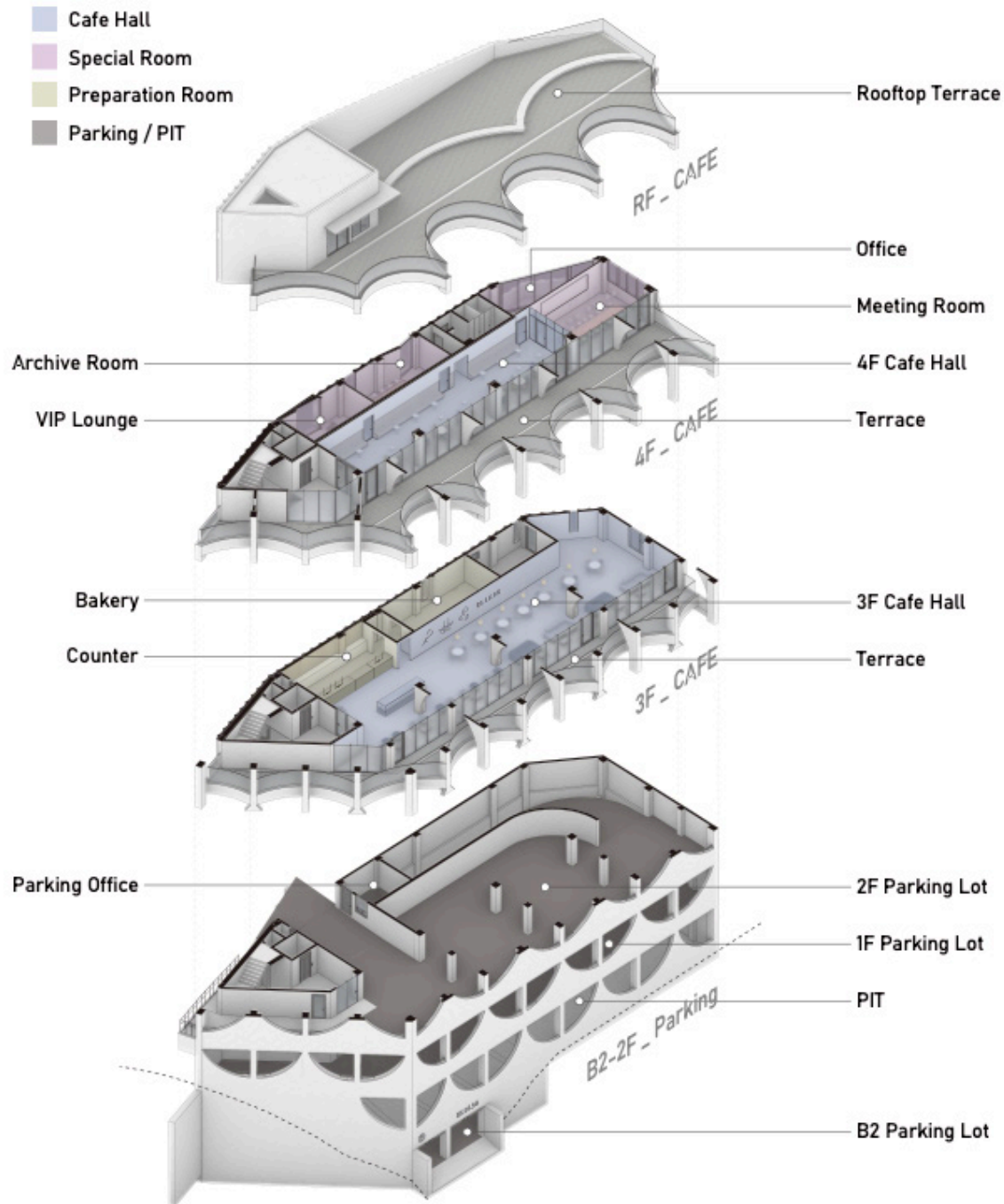
The entrance to EL16.52 lies to the west of 2F of the project. The western façade, unlike the expansive terraced façade to the east opening out to the sea, is composed of a kitchen and private rooms, and hence has a relatively solidly filled impression. It was necessary to consider how visitors from Amnam Park trail could be enticed into the building, while also considering the entry and exit paths from the visitor parking lot, hence requiring clearly distinguished entrance and exit plans for people and vehicles.



[EL 29.32]



## Axonometric Diagram



## 3F: Repeated The Arch

### 3층: 아치의 반복



지상 3층과 4층은 카페다. 지상 2층 주차장 진입 레벨보다 4m 위에 있는 이 카페는 대지에서 가장 극적으로 송도 앞바다와 마주한다. 여기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아치형 구조체다. 외부 풍광을 담은 하나의 프레임으로도 이 구조체는 내부 공간까지 이어지는데, 보는 이로 하여금 내부와 외부가 하나의 구조 시스템으로 이루어졌다고 느끼게 한다. 저층부의 평평한 입면과 달리 선들이 입체적으로 구성된 모습도 특징이다. 3층과 4층의 테라스에서 볼 수 있는 아치는 평면의 곡선이 수직적으로 등장한 꼴로 색다른 공간감을 선사한다. 이 웨이브는 3층과 4층 볼륨의 높이인 약 10m 정도의 구조 틀에 억인다. 구조 틀은 곧 기둥을 말하는데, 하층부 주차장 입면에 드러난 웨이브의 피크점에서 솟은 기둥이 상층부 평면에 있는 웨이브 피크점과 만나는 식이다. 이처럼 바깥의 구조적 형상이 실내의 공간적 패턴과도 연결되어 형태적으로 일원화된 체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했다. 이번 프로젝트에서 아치형 곡선은 공간을 구축하는 데 중요한 단서였다. 반복된 웨이브에서 강한 역동성이 느껴지기 때문이다. 우리는 모티브의 반복이 만들어내는 형태적 강렬함이 바다를 면한 대지의 상징성에 걸맞다고 생각했다. 이처럼 모티브가 가진 상징성을 발굴하고 그것들을 반복해 공간을 만드는 작업은 내게 매우 흥미로운 일이다.

[EL 33.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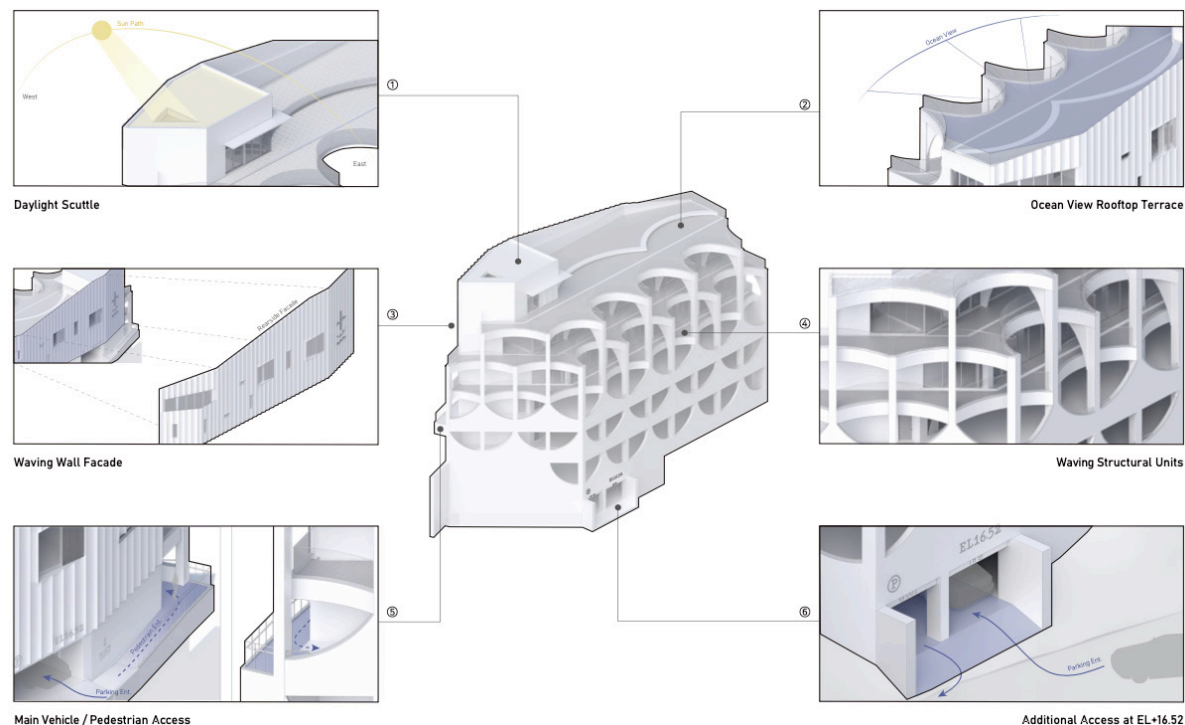
3F and 4F house a café. This café, 4m above the 2F parking entrance level, hosts the site's most dramatic encounter with the Songdo seafront. A key feature of this space is the arched structure. This structure, otherwise seen as a frame to drawn in the outside scenery continues to the indoors, creates an illusion for viewers that the inside and outside spaces are built from a single structured system. Unlike the simple plane facades of the lower floors, its character is revealed from a composition of multi-dimensional lines. The arch, visible from the terraces of 3F and 4F, create an illusion that the vertical emergence of waved curves from the level surface of the arch form the space. This wave entwines with an approximately 10m tall structural frame matching the volumes

개인적으로 건축가가 만들어야 할 공간성은 조잡하지 않으면서도 일정한 상징성을 내포한 반복적 체계라고 생각한다. 마치 산

티아고 칼라트라바가 보여준 구조의 반복, 혹은 발레리오 올지아티의 작업에서 느껴지는 기하학적 패턴의 강렬한 힘에 이끌렸는지 모르겠다. 어쩌면 종묘 회랑에서 느껴지는 정적인 질서와 열주의 반복에서 느껴지는 강한 에너지를 이곳에 형태화했는지도 모른다. 한편으로는 반복된 웨이브가 만들어내는 에너지를 고체화한 것일 수 있다. 마치 우리가 바다를 보며 본능적으로 경탄하면서도 두려움을 느끼는 것처럼 이곳에서 일렁이는 감정의 파동이 이러한 형태의 반복을 통해 형상화되기를 바랐는지 모른다. 구조미 자체가 인테리어 요소로 작동할 수 있도록 실내에는 의장 요소를 최소화했다. 바깥에서 실내로 관입되는 아치 구조와 그 운동성을 실내의 주요한 형태미로 부각한 것이다. 프로젝트를 상징하는 사인 그래픽과 아이콘들을 벽면에 음각화해 새겨서 포인트 월만 만들었고, 노출콘크리트라는

외부마감재를 내부로 끌고 와 통일성을 갖췄다. 한편 이러한 구조적 인테리어가 내외부 공간성을 규정짓는다면 조명과 가구는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감성을 덧붙이는 요소로 작동한다. 덴마크 가구 브랜드인 프리츠한센과의 협력을 통해 북유럽 감성의 가구들이 노출콘크리트와 대조를 이루며 공간에 활기를 불어 넣기를 바랐다. 다채로운 색감의 패브릭 소파와 스톨, 미니멀한 디자인의 테이블과 의자는 인테리어의 주인공으로서 사용자에게 색다른 감성과 편의성을 제공할 것이다.

글 이정훈



of 3F and 4F. The structural frame is in fact composed of columns rising from the visible wave peaks from the lower parking level façade to meet with wave peaks on the upper-level plan. In this way, it was deemed important to create a holistic system for the form, whereby outside structural forms connect to indoor spatial patterns.

In this project, the arched curve was an important motif for composing space. A strong sense of dynamism can be felt from the recurring motion of waves. We found that the energetic form created through the repeated motif resulted in an apt portrayal of the site facing the sea. As such, identifying symbolism in the motif, and creating spatiality through their repetition was a fascinating task. From my perspective, spatiality composed by the architect must propose a recurring system with a certain inherent symbolism, that refrains from being crude. Perhaps we were drawn to the recurring structure seen in the Santiago Calatrava, or the powerful force of the geometrical patterns felt from projects by Valerio Olgiati. Perhaps, the site's form that we composed was derived from the vital energy felt from the galleries of Jongmyo shrine, through their static order and repeated colonnades.

[EL 33.32]





프리츠한센과의 협력을 통해 공간에 활기를 불어 넣는 스타일링을 시도했다.  
In collaboration with Fritz Hansen, the team tried styling to bring life to the space.

It could also be seen as the solidification of the energy generated from the recurring waves. It was as if, we wished that turbulent waves of emotion may be depicted through the repetition of form, in the same way that the sea provokes both a sense of instinctive reverence and of fear.

Minimal design elements were used indoors so that the aesthetics of the structure itself could function as an element of the interior design. This is exemplified through the arched structure penetrating indoors from outside, and how the motility of the structure is accentuated as the central formal aesthetic. The graphic emblem of the project and icons were minimally added as engravings on a point wall, and a sense of unity was achieved through use of the outdoor exposed concrete indoors. While the interior structure governs the spatiality within and without, lighting and furniture elements were supplemented to this base to activate new sensibilities. The furniture and lighting were picked through a collaboration with Danish furniture brands Fritz Hansen, aiming to revitalize the space covered exposed concrete. The colorful fabric sofas and stools, the minimal design of the tables and chairs exist as protagonists of the indoors, offering users an exclusive ambiance and sense of comfort.

Written by Lee Jeonghoon

[EL 33.32]

## 4F: The Room and Terrace

### 4층: 방과 테라스

3층 테라스가 이곳을 방문한 모두를 위한 보편적인 공간이라면 4층 테라스는 좀 더 프라이빗한 공간들로 채워진다. 암남공원 방면으로 VIP라운지, 아카이브라운지 등이 자리하고, 3층보다 외부 테라스가 넓다. 이는 카페의 다양한 고객 수요를 충족하고 시간대별로 공간 쓰임새를 유연하게 하자는 의도와 맞물려있다. 이렇듯 아치 구조체가 만드는 경계에 따라 프로그램 특성을 구분하고 공간을 구획했다. 특히 4층 테라스에는 6m 폭의 넓은 아치가 지나가는데, 이는 테라스의 사용성을 더 높일 것이다. 높은 해발고도에서 느끼는 개방감을 극적으로 전하기 위해 3층과 4층의 내외부 공간의 비율 및 테라스 폭을 달리한 것이다.



입면에 등장하는 아치형 구조체는 아름다운 풍광을 담은 프레임으로 작용할 수 있다. 동시에 내부공간과 외부공간을 연결하면서도 구획 짓는 역할이기도 하다. 카페는 프로그램이 요구하는 내밀한 영역감을 만들어내고 외부로 뻗어 나가는 확장성을 함께 보여주어야 한다.

The façade's arching structure serves as a frame to capture the striking views. Additionally, it all at once connects and demarcates the inside and outside. It is both a device to chart out a territorial sense of privacy needed in café programs, and a method to express the expansiveness with which the project unfurls outwards.

If 3F terrace is open to all visitors, the 4F terrace is furnished with more private spaces. The VIP Lounge and Archive Lounge are placed facing Amnam Park, with more ample terraces than in 3F. The intent was to satisfy the diverse needs of the café's consumer base, while providing fluid spaces throughout the day. As such, program elements were identified and allotted space along the boundaries formed by the arch structures. For instance, the 6m wide arch penetrating the 4F terrace in fact increases the utility of the terrace. Discrepancies in the 3F and 4F indoor-outdoor ratios and terrace widths help communicate the exhilarating openness felt at such heights.



4층 서쪽에 위치한 실들은 소규모 미팅과 모임 등 다목적으로 활용 가능하다. VIP라운지는 모던하면서 세련된 마감재로 마무리하고 아카이브라운지는 마치 예술가의 작업실처럼 EL16.52의 설계와 조성 과정을 보여주는 방이 될 것이다. 남쪽 모서리에 위치해 바다를 조망할 수 있는 미팅룸은 소규모 세미나를 할 수 있는 크기로 계획했다.

글 이정훈

The chambers located on the western side of the fourth floor can be used as a multipurpose space for small meetings or gatherings. The VIP lounge was completed with a modern and sophisticated finish, and the archive lounge will resemble an artist's atelier, featuring exhibitions of how EL16.25 was completed. A mid-size conference or seminar room with a view of the sea has been planned for the corner to the south.

Written by Lee Jeonghoon

[EL 37.32]



컬러풀한 가구들이 공간에 생기를 북돋운다.

The colorful furniture brings vitality to the space.



## Rooftop: Events of the Sky and Sea

루프탑: 하늘과 바다의 이벤트

[EL 41.82]

루프탑은 본 프로젝트의 최고점이자 바다와 공원을 동시에 조망할 수 있는 공간이다. 자연경관이 파노라마로 펼쳐진다. 3층과 4층이 실내에서 바깥의 바다를 바라보는 장소라면 루프탑은 본 대지가 도시에 어떻게 놓였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장소다. 즉 루프탑은 자연 속에 있다는 경험을 수평적, 수직적으로 보여주는 발판인 셈이다. 또한 루프탑은 다양한 이벤트 공간이다. 평소에는 일반 전망대처럼 쓰지만, 야외 행사 및 프라이빗 파티도 열 수 있다. 이러한 확장성에 맞춰 루프탑에 사용하는 가구는 쉽게 이동할 수 있는 경량 소재 위주로 구성했다. 즉 사용자의 의지에 따라 가구를 쉽게 재배치할 수 있고 여러 의도에 맞춰 공간을 재구성할 수 있다.

The project culminates at the rooftop, simultaneously featuring the sea and the park. The panoramic view illustrates expansive natural surroundings. If 3F and 4F provide indoor views of the sea outside, the rooftop instantly reveals the placement of the site within its urban context. Hence, the rooftop is a foothold vertically and horizontally showcasing the experience of being in nature. Also, the rooftop can be used for different events. Other than daily use as an observation platform, it can also be used for outdoor events or private parties. The rooftop furniture is generally composed of portable and lightweight materials to meet diverse needs. Accordingly, users can easily rearrange furniture to recompose the space as they wish.





EL16.52의 이미지를 고려해 3층부터 루프탑까지  
외장 타일의 색깔을 달리해 그라데이션 효과를 냈다.

The viewer can see a gradation effect that uses  
different colored tiles from 3F to the rooftop.

The landscape is as important an aspect  
of the rooftop as is its functionality.  
When EL16.52 is seen from the Songdo  
marine cable car to the east, the rooftop  
is a crucial element to establish an  
overall image of the project. Reflecting  
on how EL16.52 might be seen from this  
angle, we applied a gradation effect  
using different colored tiles from 3F to  
the rooftop. As “EL” denotes elevation,  
a bright off-white was selected for the  
rooftop, with progressively darker tiles  
on the descent towards 4F, 3F terraces.  
The particularities of a viewpoint from  
a cable car was taken into account to  
apply a color scheme to the façade as a  
landscape element.

루프탑은 이러한 기능 외에도 경관 측면에서 중요하다.  
동쪽에 있는 송도해상케이블카에서 EL16.52를 바라보면  
루프탑은 전체 건물의 이미지에 마침표를 찍는 키 포인트일  
것이다. 이러한 시선에서 어떻게 EL16.52의 이미지를  
보여줄지를 고려해 3층부터 루프탑까지 외장 타일의 색깔을  
달리해 그라데이션 효과를 냈다. 즉 ‘EL’이 지닌 해발고도란  
의미에 맞춰 루프탑에 사용되는 타일은 미색과 같은  
밝은색으로 선정했고, 4층, 3층 외부 테라스로 내려갈수록  
점차 짙어지게 했다. 케이블카라는 특수한 조망점을 고려해  
경관적 요소로서 입면 색채 계획을 적용한 것이다.